

II. 2016학년도 1차 선발시험 해설



국어 영역(A형)

1. ③	2. ③	3. ④	4. ⑤	5. ②
6. ④	7. ②	8. ③	9. ④	10. ⑤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③	19. ④	20. ①
21. ④	22. ⑤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⑤	28. ③	29. ④	30. ③
31. ①	32. ②	33. ③	34. ②	35. ①
36. ③	37. ①	38. ④	39. ③	40. ②
41. ①	42. ⑤	43. ④	44. ④	45. ④

화법

1. 강연에 반영된 내용 파악

정답 ③

이 강연은 동영상 통해 흥미를 유발한 후 개념을 정의하고,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① 3문단의 ‘사물인터넷은 각종 기기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 용어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5문단의 모든 부품이 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의 ‘2009년 당시 9억 개 정도로 집계되었던 사물인터넷 기기의 개수는 2020년이 되면 370억 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강연 전략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중 화법’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는 일방적인 성격을 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청중을 고려하여 청중과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화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 중 청중과의 상호 소통이 일어나지 않거나 내용에 어긋난 진술을 고르면 된다. ㉣의 경우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과 사물인터넷이 주도한 시대의 모습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래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여러분과 함께~알아볼’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학생들의 소감을 들은 후 그 반응에 대해 언급하며 강연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 ④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름을 물어보듯’에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세요.’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의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강연의 반응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에서 학생은 강연 후에 스스로 내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을 겪고 ‘그 이상의 지식을 알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① 전문 용어의 이해를 주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강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③ ‘동영상을 본 후~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청각 매체 자료의 활용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강연 내용의 현실적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없으며, 마지막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강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4. 대화자들의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 ⑤

‘미소를 짓는다’는 호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역시 긍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이라는 진술과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상대를 보지도 않으며 단호하게 ‘반대’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요.’라고 말투를 변화시켰으므로 해당 문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일리가 있어.’라고 하며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동시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놀란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과 ‘뭘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라는 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5. 대화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②

인국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에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 동반으로 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⑥의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는 의견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인국의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국의 '주민들과 공동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준의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철호의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 문

6. 생성된 내용의 초고 반영 여부 평가 정답 ④

㉠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개설 중목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① ㉡의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저희는 지난 학생회장 선거에서~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의 아침 식당 운영 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의 반영은 '그 결과~가까이 되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의 학교 여건에 대한 반영은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동시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의 꾸준한 운동이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영은 '무거운 몸으로 허둥지둥~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연구 결과에 나오는 운동의 장점을 풀어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1) 몸과 정신 건강, 2)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 3) 직유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진술은 ②이다. 1) 몸과 정신 건강은 '몸과 마음을 활력 넘치게 할 것입니다.'에서, 2)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우정'에서, 3) 직유법은 '비타민처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몸의 건강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정신 건강,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 직유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과 몸의 건강만 언급되어 있고, 정신 건강, 직유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직유법(새처럼)과 정신 건강만 언급되어 있고, 몸의 건강과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몸의 건강만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의 앞부분에서는 평소에도 지각을 자주 하는데 30분 일찍 오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룹에도 불구하고 30분 일찍 오게 되면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어로 '그런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는 '그러한 데다가 더'라는 추가의 의미이므로 맥락상 앞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일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 ① '지각'이라는 어휘에는 '늦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늦게'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지금도 늦는 사람에게 30분 더 일찍 나오라는 말은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아침 운동을 가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것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느끼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9.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④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1문단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물 등을 작성할 때 범죄 의식 없이 표절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학생 대부분이 표절을 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표절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4문단에서는 표절에 대한 예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표절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1, 2문단에서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3, 4문단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고쳐쓰기 의견의 반영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검토 의견은 1)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 붙이기, 2) 서두에 시사적인 내용 언급, 3) 결말에 주요 내용 요약 후 독자의 동참 촉구, 4) 객관적 통계 자료 추가, 5)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음 고려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3)의 내용과 비슷하긴 하나 주요 내용 요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문 법

11.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짓이기다'의 발음 과정을 살펴보면 [질이기다] → [질니기다] → [진니기다]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정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시'가 '치'로 교체되고, '니'가 첨가된 다음 다시 '치'가 '니'로 발음되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탈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없다 → [업다] → [업따]이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ㅅ’이 탈락한 후,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 ② 앞문 → [압문] → [암문]이므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교체된 후, 비음화로 인해 다시 ‘ㄹ’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밟는 → [밥는] → [밤는]이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ㄹ’이 탈락한 후, 비음화로 인해 ‘ㅂ’이 ‘ㄹ’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이므로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음이 축약된 후, 구개음화로 인해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품사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은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 ㉡은 이불을 세는 단위의 의존 명사, ㉢은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은 야채나 과일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잘게 썬 일을 뜻하는 명사이다.

이를 통해 ㉠, ㉡, ㉢은 체언임을 알 수 있고, ㉠, ㉡은 의존 명사이므로 수식어인 관형어를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 부사이므로 수식이 필요한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 ㉢은 의존 명사와 명사이므로, 같은 의존 명사인 ㉡과 마찬가지로 조사의 수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또한, 부사인 ㉣과 명사인 ㉤은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d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3.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 문장에서 ‘시청에서’의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초의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주어라 볼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발표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 문장에서 ‘그에게’의 ‘에게’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는’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문장에서 주어라고 볼 수 있다.

- ① ㉠ 문장의 ‘시청에서~사용하겠다고’를 통해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문장에는 관형절의 서술어 ‘중요한’의 주어 ‘문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즉,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은 ‘문제’를 수식하는 관형절인데, 이는 ‘문제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 문장을 변형하여

안긴문장으로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서술어의 개수를 통해 홀문장의 개수를 파악해 보면, ㉠에는 ‘인상적인, 오래된, 사용하겠다, 발표했다’ 등 4개의 서술어가 있고 ㉡에는 ‘돌아오느냐, 중요한, 문제이다’ 등 3개의 서술어가 있는데, ㉢에는 ‘찾지 못하면, 주도록 하겠다’의 2개의 서술어가 있다. 따라서 홀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 ④ ‘~못하면~하겠다.’는 앞 절에 따라 뒤 절의 의미가 달라지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14. 대화 속 표현의 문법적 사용 이해

정답 ⑤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우리’는 대화 상대를 제외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몇 시냐?’라는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아들의 늦은 귀가를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있다.
- ② ‘-히-’라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붙잡혔어요.’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결과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탄사 ‘아차!’를 사용함으로써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못’ 부정은 능력 부정으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의지 부정인 ‘안’ 부정과 다르다. 즉, 상황에 의해 할 수 없는 부정을 의미하므로 성수는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5. 사전의 이해 및 활용

정답 ②

‘부르다’는 ‘불러, 부르니’ 등과 같이 활용하여 어간이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불리다’의 경우 ‘불리어, 불리니’ 등과 같이 활용하여 어간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불리다’[2]의 사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므로 ‘부르다’[1]의 ㉠이 들어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부르다’[1]의 ㉡은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④ ‘유도’나 ‘초래’는 피동형으로 쓰기 어렵다.
- ⑤ ‘부르다’[1]~[3]은 모두 [...을]이 필요하므로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기 술

[16~18] 지문 해제

입체 음향 기술을 실현시키는 바이노럴 효과

입체 음향 기술에 대한 지문이다. 음원의 위치를 3차원 공간 상의 어느 곳이나 위치시킬 수 있는 기술인 입체 음향 기술은 음이 사람의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ITD)와 두 귀에서 느끼는 음의 세기 차(ILD) 때문에 발생하는 바이노럴(binaural)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입체 음향용 음원은 더미 헤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데, 이렇게 녹음된 바이노럴 음원은 청취자가 헤드폰으로 청취할 경우 별도의 신호 처리 과정 없이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제작 시 양 귀를 잇는 축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더미 헤드의 특성으로 음원 위치 지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면 음원의 방향도 함께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스피커를 이용해 청취할 경우 입체감이 현저하게 감소되는데, 이는 원치 않는 소리가 반대편 귀로 들어가는 '크로스토크'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크로스토크는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제거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16.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②

2문단 마지막 부분의 '더미 헤드는~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음원 위치 지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를 통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1문단의 '사람은 두 귀로~이를 바이노럴(binaural)효과라 하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는~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스피커를 이용해 청취할 경우 입체감은 현저하게 감소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면 음원의 방향도 함께 움직이는 단점이 있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2문단의 '양 귀를 잇는 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축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ITD와 ILD가 같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를 보면, 축의 중심점에서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음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혼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A~E 중 같은 각도,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는 B와 E임을 알 수 있다.

18.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면, 소스 음원과 같은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만약 소스 음원이 1이라면 2와 3을 서로 대칭으

로 만들어 줘 상쇄시키는 크로스토크 제거 필터를 통해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따라서 오른쪽 귀에 1과 2가 상쇄되어 3만이 남는다면, 1과 2가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고르면 된다. ⑤의 경우 1과 2가 대칭이긴 하나 3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되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그림이다.

예 술

[19~22] 지문 해제

미적 판단의 적절성

미적 판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예술 지문이다. 미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경험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나므로 감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판단의 차이에 대해 실재론자들은 미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지지한다. 반면,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으며 미적 판단이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레빈슨은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 글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④

이 글은 미적 판단에 대한 실재론자들의 주장, 반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이들을 통합하는 이론인 레빈슨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20.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이 글은 전체적으로 미적 판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재론자들, 반실재론자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포괄하고 있는 레빈슨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미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①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이 글은 미적 판단의 주체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글은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 자체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 아니다.
- ⑤ 이 진술은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

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1.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④**

㉠ ‘구조적 속성’은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일부 직사각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하부 구조적 속성’은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에서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맥락적 속성’은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등을 일컫는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에서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레빈슨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만, 감상자들이 술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⑤의 ‘야하다’는 현상적 미적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는 있지만, 주관적 판단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은 ‘야하다’라는 술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입되기 때문에 ‘야하다’라는 술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들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② 레빈슨의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현상적 미적 인상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인 문

[23~26] 지문 해제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세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자연권설은 기본권을 전국가적, 초국가적인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본다. 실정권설은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을 질서와 관련하여 바라보는데,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23.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③**

3문단의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를 통해 ③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2문단의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의 ‘이는 기본권이~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소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작위(作爲)나 부작위(不作爲)를 요청할 수 있으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결국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5문단의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⑤**

5문단에서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이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동화되고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원동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⑤의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적 질서를 벗어난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다고 하기 어렵다.

25.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⑤**

<보기>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교육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 권력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정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①③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라 볼 수 있다.

②④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연권으로 국가 권력에 앞서 존재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26. 맥락에 따른 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 ②

㉠ ‘원동력(原動力)’은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① ‘힘’, ③ ‘일으킴’, ④ ‘본바탕’, ⑤ ‘움직임’은 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② ‘바닥’은 ‘평평하게 넓이를 이룬 부분이나 물체의 밑부분’을 의미하므로 ㉠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 학

[27~30] 지문 해제

양자 물리학 -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

양자 물리학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양자 물리학은 양자들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는 학문이다.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을 하게 되면 파장이 여러 겹 겹쳐 있는 ‘중첩’ 상태가 깨지고 특정 값을 갖는 상태로 ‘확정’되어 특정 값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의 우연성을 용인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중첩’ 상태의 깨짐과 상태의 ‘확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출되었는데, 그중 폰 노이만은 측정 결과를 ‘인간이 인식할 때’ 비로소 ‘중첩’이 깨지고 값이 ‘확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슈뢰딩거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폰 노이만은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된 상태라도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확정’된다고 하였지만, 슈뢰딩거는 고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장은 중첩 상태를 깨뜨리고 특정한 상태로 확정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검출기라는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 양자 물리학이 각광받고 있지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로 남아 있다.

27.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1문단의 ‘중첩된 상태의 모든 값을 측정했다고 할 수 없다.’를 통해 ⑤의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2문단의 ‘확률을 세계의 본질로 보고 미래의 우연성을 용인하는 이러한 경향’을 통해 코펜하겐 해석은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비판한 바 있다.’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확률과 미래의 우연성을 용인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그에게 우주의 인과 관계는 신의 질서와도 같아서,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으로 아름답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였다.’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엄밀한 인과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양자들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는 학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8.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③

㉠ ‘슈뢰딩거의 해석’은 ‘반생반사(半生半死)의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시간 후 고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상자를 열어 보는 행위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생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ㄴ이, 이미 결정된 생사를 단지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ㄹ이 슈뢰딩거의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ㄱ. 6문단의 ‘방사성 원자의 중첩 ‘상태’를 깨뜨리고~사람이 아닌 검출기라는 것이다.’를 통해 코펜하겐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ㄷ. 5문단의 ‘한 시간이 지나도~‘중첩’된 상태에 있지만, 상자를 열어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확정’된다.’를 통해 폰 노이만의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ㄴ. 5문단의 ‘고양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상호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를 통해 폰 노이만의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9. 내용 파악을 통한 표현의 이해

정답 ④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표현은 여전히 이 사고 실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④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30.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③

㉠ ‘용인(容認)’의 사전적 의미는 ‘용납하여 인정함.’이다.

현대 시

[31~33] 작품 해제

김소월, 「나무리벌 노래」

나무리벌은 황해도에 있는 재령평야를 말한다. 재령평야는 전라도 김제의 만경평야 다음 가는 곡창 지대로 알려졌을 만큼 물자가 풍족해서 먹고 입고 쓰기도 남는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물도 많고 / 땅 좋은 곳’인 나무리벌에서 생산한 쌀 생산량의 70%가 반출되면서부터 나무리벌 농민들은 힘든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일제의 수탈 정책에 의해 억울하게 만주 봉천으로 추방당한 농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이 담긴 작품이다.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이 작품이 발표된 1946년은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등져야 했던 각지에 있던 유이민들이 광복이 되자 국내로 들어오던 때였다. 이들은 새로운 조국,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살 곳, 일자리 등을 찾지 못한 채 고달프게 살아야 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귀향했으나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없었던 유이민의 고달픈 삶의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31.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 (가)는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왜 왔느냐’ 등을 반복하고 있고, (나)는 ‘혼자만 곱구나’,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등을 반복하며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의 효과를 거두지는 않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은 있지만 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에서 ‘출렁출렁’, (나)에서 ‘후 후’ 등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나)의 경우 ‘생각하누’라는 특정 종결 어미를 구사하고 있지만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2.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 (나)의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에는 상실한 조국이라는 ‘장소’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불행을 예감하는 심정이 내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가)의 ‘나무리벌’은 유이민들이 살던 고향으로 친숙하고 안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아 동일성을 형성시킨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가)의 ‘만주 봉천’과 (나)의 ‘만주’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 ④ (가)와 (나)의 시적 화자들은 조국을 등지고 만주로 가게 되었으므로 본원적 애착을 가졌던 장소를 상실하고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⑤ (가)의 ‘피땀’과 (나)의 두터운 얼음과 거센 바람은 낯선 곳에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통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절망적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자료를 활용한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 3연에서 ‘띠팡’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면 농사지며 가가 거 거 배운다고 했으므로, 화자가 ‘아배’보다는 ‘거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혼자만 곱구나’는 등장인물의 발화로도, 화자의 발화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왔단다’라며 간접적으로 사연을 전달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달디달구나’는 화자가 직접 등장인물이 된 것과 같은 표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는 화자가 등장인물과 소통을 시도하는 물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고전 시가

[34~36] 작품 해제

안조원, 「만인사」

이 작품은 안조원이 34세 때 귀양 가서 풀려날 때까지의 비참했던 모습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그는 국고로 경박한 생활을 하다가 추자도로 유배되었는데, 이 작품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심정과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가가 인편으로 이 가사를 서울로 보냈는데, 권 안의 궁녀들이 이것을 읽고 모두 눈물을 흘리니 이 사실을 왕이 알고 석방했다고 한다. 약 1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위선과 허식을 벗고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체험과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34. 시상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②

- 이 작품에서는 작은 낫을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간 후 낫시를 하기 위해 ‘조대’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후회 등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②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이 작품에는 여러 상황이 열거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작품에는 화자의 한탄과 고통, 괴로움, 근심의 정서가 주로 나타나 있을 뿐,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유배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35. 작품 속 시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①

- ㉠에서 화자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설움’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답답함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창’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이 원경과 근경으로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에서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⑤ 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6. 자료를 활용한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이웃집 아이들’에게 낚시질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집 아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대상일 뿐, 이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① ‘소무의 북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해, 자신도 언젠가 이 고생이 끝날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풍상이 섞여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추운 날씨를 표현하는 익숙한 표현이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통해 ‘성상’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낚시’는 관습적으로 무욕과 풍류를 나타내는데, 이는 ‘취여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⑤ ‘백구’의 관습적 의미는 자연인데,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소설

[37~40]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심청전」

심청전은 다양한 설화가 판소리 사설의 형태로 구전되어 오다 소설화된 작품이다. 아버지의 개안(開眼)을 위해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자신을 제물로 바친 후, 용왕에 의해 환생한 심청이 왕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심청이 부친의 개안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은 유교적 효(孝)라고 할 수 있으나 부친보다 먼저 죽었다는 면에서 심청은 불효녀가 된다. 이러한 모순은 도교 사상과 불교의 인과 사상에 의하여 극복된다. 즉, 심청이 인당수로 투신하였을 때, 부친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숭고한 행위가 인(因)이 되어, 심청은 인간 세계로 다시 와서 황후가 되고 부친은 개안을 하는 과(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작품의 배경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37.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해 정답 ①

이 작품은 ‘심청’과 ‘심봉사’, 유모 ‘귀덕 어미’, ‘선인’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도화동 심 소저는 천신이 아는지라 흠향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사건을 둘러싼 인물 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⑤ 심청이 자신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보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인물의 과거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8.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A]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기보다 심청과 아버지의 처지가 모두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왕상’과 ‘맹종’의 고사를 들며 아버지에게 상황을 비판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다.
 ② 첫 시작에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을 비롯하여 여러 초월자에게 아버지의 개안과 복을 기원하고 있다.
 ③ 선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다고 하면 아버지가 충격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 이를 전하고 있다.
 ⑤ [A]와 [C] 모두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39.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③

[자료2]의 ‘사신’은 홍장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조력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귀덕 어미’는 선인들의 소식을 심청에게 전하고 심청과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사신’의 역할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① [자료2]의 ‘홍장’은 희생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② [자료2]와 이 작품에서는 모두 부모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④ [자료2]의 ‘홍장’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의 개안을 이끌어 냈으므로 효행 설화에 해당한다.
 ⑤ [자료1]의 ‘선인’이 ‘심청’을 사는 것은 자신들에게 미칠 화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40.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②

‘선인’들은 ‘심 소저’를 보고 억색(臆塞,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가슴이 답답하다)해하며 ‘심 소저’의 효성을 칭찬하지만 ‘저의 일이 긴한지라’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이 먼지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②의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제코가 석 자’가 가장 적절하다.

현대 소설

[41~45] 작품 해제

이청준, 「축제」

‘축제’는 소설가인 이준섭이 노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꽤 알려진 작가 이준섭은 고향 집에 계신 노모의 부음을 받는다. 준섭의 도착과 함께 시골집의 장례 절차가 시작된다. 상가에 하나둘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몰려드는데 각자의 관계와 사연 따라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르다. 노모의 죽음 앞에서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은 오래전 집의 돈을 훔쳐 가출한 준섭의 이복 조카 용순의 등장으로 그 골이 깊어진다. 여기에 작가 이준섭을 취재하겠다는 명목으로 내려와 있는 잡지사 기자 장혜림의 등장은 용순을 비롯한 준섭의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소란스러운 상가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문상객들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인물 개개인의 기억을 헤집는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노모의 생애가 회고되며 그동안의 갈등과 설움이 폭발하고 또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겪는다.

41.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해 정답 ①

-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갈등이 나타나면서 주인공인 준섭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긴 하나 잦은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으며 서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도 않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은 회상이 아니라 동화 속 내용에 대한 상상 부분이다.
 - ④ 이 글에서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 ⑤ 이 글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드러나 있지 않다.

42.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 ①은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기릴 수 있는가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해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도 마음에 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이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 ① 용순이 준섭에게 불만을 내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 ② 용순의 표정을 통해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나중에는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외동매이 은지네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화책 내용이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3.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기보다 할머니의 곁에 없었던 용순을 나무라고 있는 내용이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특별히 없다.

- ① ‘우리 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앉아 왔어.’와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를 통해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폐악질’, ‘유치한 투정’ 등 상대의 행위를 부정적 행위로 단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 ③ 여러 질문을 연속하여 던짐으로써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⑤ 용순이 비난하고 있는 준섭을 자신이 대신해서 옹호하고 있다.

44.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준섭은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가족들에게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계속 침묵하고 마음 깊이 혼자 되새기고 있을 뿐이다.

- ① 장례를 계기로 용순과 은지네, 외동매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할머니를 병간호해 오면서 묵었던 감정을 겉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족들이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묵은 갈등을 소란스럽게 풀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혼돈과 무질서한 모습은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는 달리 즐겁고 ‘흥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란통’과 조용하고 차분한 ‘묵상’이 대비를 이루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서로 공존함을 보여 주고 있다.

45.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은 할머니께서 남은 사랑을 모두 나눠 주고 떠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① 할머니의 임종과 관련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치매에 걸려 쇠약해진 할머니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지의 기원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